

데이터 분석, 실시간 운전 보조... 주가·환율 예측 알고리즘

현대차

LG전자

이스트소프트, AI플러스 행사

AI 에이전트 POC단계, 양산 목표
수요 미리 예상해 구매 정보 제공

현대자동차는 차량내외부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밖에 비가 내리고 차선이 잘 안 보일 때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하이빔 어시스턴트를 켜 걸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하이빔 어시스턴트를 켜까요?”라고 물어보는 AI 에이전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박상길 현대자동차 ‘에어랩’ 팀장은 6일 AI 전문기업인 이스트소프트가 주최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개최된 AI 기술 컨퍼런스 ‘AI 플러스(PLUS) 2019’ 행사에서 ‘자동차 에이전트 소개-자동차에서의 AI 적용’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팀장은 “현대차는 차량의 내부 센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가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이스트소프트 주최로 개최된 AI 기술 컨퍼런스 ‘AI 플러스(PLUS) 2019’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스트소프트

서를 통해 운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외부의 센서를 통해서도 외부의 운전자 정보를 수집한다”며 “AI는 운전자가 어제 에어컨을 켜오니 오늘도 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외부 집단의 90%가 에어컨을 켜었다면 ‘당신도 에어컨을 켜겠습니까?’ 라고 제안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같은 AI 기능의 차량 에이전

트를 POC(Proof Of Concept) 단계로 개발했으며, 향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를 담당하는 ‘에어랩’ 직원들이 현재는 50명 정도이지만 앞으로 200명까지 인력을 늘리고 AI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AI 에이전트가 회사로 출발할 때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주고, 컴

퓨터 비전 시스템이 자동차의 눈이 돼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운전자가 졸립거나 전방 주시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 위험을 알리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이동수단으로서 자동차를 뛰어넘어 데이터 분석 기반의 수요 예측 모델을 만들고 실시간 수요와 교통 상황을 반영할 것”이라며 “운전자가 음성으로 ‘엔진오일 언제 갈아야 돼’,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체크해줘’하면 AI가 이에 대한 답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AI 번역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으로 비문, 줄임말 등까지 이해해 번역을 해주는 성능이 입증됐으며, 해외에 있는 임직원들과 통화할 때 실시간 통역까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우형 LG 연구위원은 ‘AI를 활용한 시계열 예측’ 주제 발표를 통해 “AI가 앞으로 예측 알고리즘에 사용돼 수요를 예측하거나 원자재가 얼마나 오를지 예상해 미리 구매하라는 정보를

줄 수 있다”며 “고장 예측, 전력량·교통량·통신 서비스 예측, 주가를 예측해 매매 정보를 주거나, 환율·유가를 예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연구원은 “아마존 등에서도 어느 물건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판매될지 예측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버도 600개 지역에서 많은 탑승자들이 차량을 탑승하기 원하는 지역으로 기사들을 미리 보내놓는 포캐스트 알고리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I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면 10%의 확률로 맞는지 90%의 확률로 맞는지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원은 답마인드가 AI가 신장의 이상이 생길 것을 최대 48시간 전에 예측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이 실험에 70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55.8%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중국 상하이 유즈 미술관 전경

현대차, LA·상하이 미술관과 파트너십

오늘, 파트너십 알리는 첫 전시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문화예술 파트너십 활동을 확장한다.

현대차는 2015년부터 장기 파트너십을 맺은 ‘LA 카운티 미술관(LACMA)’과 중국 상하이 유즈 미술관(YUZ)에서 문화예술 파트너십 활동을 확장한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LACMA와 유즈 미술관 파트너십을 알리는 첫 전시인 ‘In Production: Art and the Studio System’ 전시의 7일 개막을 비롯해 향후 이어질 전시 및 다양한 고

객 프로그램을 후원하게 된다.

LACMA와 유즈 미술관 설립자 부디 텍이 2018년 발표한 공동 재단 설립을 기반으로 현대차와 추진하게 된 파트너십은 LACMA와 유즈 미술관이 공동 설립한 ‘유즈 재단’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전시·프로그램·컬렉션 관리 전반에 LACMA와 유즈 미술관이 공동 기획한다.

현대차는 개막 전시를 비롯한 전시 후원,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진행한다. 향후 상하이에서도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고객과 소통하고 독특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프로골퍼 명품샷, 안방서 생생하게 즐긴다

SKT, ‘ADT캡스 챔피언십’ 실감형 중계

SK텔레콤은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천안 우정힐스CC에서 열리는 ‘ADT캡스 챔피언십 2019’ 현장에서 5GX 실감형 중계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SK텔레콤은 ‘SKT 5GX 시그니처홀’로 지정한 우정힐스CC 13번 홀에서 ▲5GX 무선 중계 ▲연동형 가상 그래픽 ▲슈퍼 슬로모션 ▲트랙맨 등을 활용한 5GX 실감형 중계에 나선다.

5G 무선 중계는 5G 무선 카메라만으로 초고화질 현장 영상을 전송하는 기술이다. 기존 스포츠 중계는 방송 중계

차와 케이블 등이 필요한 유선 기반 중계였다. 이와 달리 5G 무선 중계는 5G 무선 카메라만 있으면 중계가 가능해 장비 간소화가 가능하다. 향후 5GX 무선 생중계는 골프, 마라톤 등 스포츠 중계뿐만 아니라 콘서트, 스포츠, 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된다.

SK텔레콤은 5G 무선 중계에 연동형 가상 그래픽을 활용한다. 연동형 가상 그래픽은 중계 영상에 가상 이미지를 입히는 기술이다. 또 초고속 카메라(초당 2000장 이상 촬영)를 이용한 ‘슈퍼 슬로모션’과 ‘트랙맨’ 등을 활용한 선수들의 스윙 분석 영상으로 중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김나민 기자 silkni@

제로백 5초... 굉음은 없었다



벤츠 ‘더 뉴 EQC’ (순수 전기차)

뛰어난 가속력, 고급스러운 디자인
4단계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 갖춰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달 국내에 출시한 EQ 브랜드 첫 순수전기차 EQC.

2018년 9월 스웨덴 아티벨라그 아트 뮤지엄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뒤 올해 3월 서울모터쇼를 통해 국내 처음 모습을 드러내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모델이다.

이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을 출발해 경기도 포천힐스CC까지 총 120km에 이르는 왕복 코스에서 EQC를 경험했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뛰어난 가속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전기차의 최대장점인 정속성과 주행성능도 뛰어났다. 가속페달을 밟자 가볍게 치고 나갔다. EQC 400 4매틱은 최고출력 408마력, 최대



벤츠 더 뉴 EQC 주행모습.

토크 78.0kg·m를 발휘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1초면 도달한다. 고속구간에서는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자 공차 중량 2425kg에 달하는 육중한 차체가 가볍게 치고 나갔다.

특히 EQC에 적용된 배터리는 다임러의 자회사인 ‘도이치 어큐모티브’에서 생산한 80kWh 리튬이온 배터리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만큼 최적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액체 냉각 방식으로 배터리의 최적 작동 온도를 조정하며 저온에서 배터리 가열 시스템을 통해 최상의 성능과 효율적인 구동 거리를 유지한다.

도심 주행에서는 EQC의 재미있는 기능은 회생제동 시스템이다. 가다 서

다를 무한히 반복해야 하는 도심 주행에서 최대 회생제동 모드를 D--에 설정하자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가속페달만으로 주행이 가능했다. EQC는 운전자 스스로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도록 네 단계 에너지 회생 모드를 갖췄다.

디자인은 새로운 외관 및 실내 디자인과 EQ 브랜드만의 컬러를 적용해 진보적인 럭셔리 디자인 철학을 구체했다. 전면 대형 블랙 패널이 헤드램프와 그릴을 감싸고 있으며, 기본으로 장착되는 멀티빔 LED 헤드램프의 내부는 하이 글로스 블랙 컬러를 적용했다.

실내는 고급스러움이 묻어났다. 운전대와 시트 가죽의 질감은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았고 엉덩이, 등받이 부분은 신소재 알칸타라를 사용해 부드러웠다.

포전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마련된 EQ 전용 충전공간에서 직접 충전을 해봤다. 기존 전기차와 같은 방식이다. 국내 표준 규격인 DC콤보 타입1로 전국의 전기차 공용 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급속충전은 약 40분이면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기아차, 카카오톡과 밀레니얼 세대 잡는다

‘MMA 2019’ 메인 후원사 참가

기아자동차가 종합 콘텐츠 기업 카카오톡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글로벌 대중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기아차는 5일 BEAT360(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에서 김상대 기아차 고객 경험본부장, 김성수 카카오톡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문화 마케팅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카카오톡과의 파트

너십 체결은 K-POP을 활용한 문화 마케팅 활동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 및 Z세대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글로벌 고객들에게 기아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젊고 역동적인 모빌리티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기아차는 카카오톡과의 파트너십 활동의 첫 시작으로 11월 30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되는 ‘MMA 2019(멜론 뮤직 어워드 2019)’에 메인 후원사로 참가한다. 기아차는 메인 후원사로서 ‘MMA 2019’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5일 기아차 BEAT360에서 진행된 기아차-카카오톡 파트너십 체결식에서 김상대 기아차 고객 경험본부장(왼쪽부터)과 김성수 카카오톡 대표이사가 하이클래스 소형 SUV 셀토스에 기념 서명을 하고 있다.

‘올해의 베스트송’ 상에 대한 명명권을 가진다. /양성운 기자